

TV 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6 2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00 KBS 뉴스광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30 채널A 아침뉴스	50 인간극장		1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잘났어 정말>	00 KBC 뉴스지금 30 남도의 아침
8 10 쾌도난마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아침연속극 <두 여자의 방>
9 40 신문이야기 풀리꾸쇼	30 KBS 뉴스	00 TV 소설 <은혜> 40 여유만만	30 2013 메이저리그 류현진 선발경기 <LAvs콜로라도>	10 좋은아침 30 SBS 뉴스
10 50 시사특급	00 글로벌 뉴스포럼 2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지구촌 뉴스		
11 50 뉴스와이드	00 여풍담당 55 바른말 고운말(재)	10 KBS 스포츠 타임 20 사랑의 가족(재) 50 비타민(재)		0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2	00 KBS 뉴스12	55 세계는 지금(재)	50 MBC 정오뉴스	00 SBS 12 뉴스 30 테마스페셜(재)
1 00 그대 그 사람(재)	00 KBS 걸작선 <드림하이>(재)	45 힐링투어 아생의 발견(재)	00 베란다쇼 스페셜 25 혼란디큐 사람이 좋다 스페셜	30 KBC 특별기획 <하늘에서 본 남자> <고흥군>(재)
2 10 토틀링평	00 KBS 뉴스 10 2013 실업안락 선수권대회 여자단체·남자개인 결승	10 디큐멘터리 3일 베스트(재)	15 자원봉사 희망 프로젝트 <나누면 행복 스페셜>	00 SBS 뉴스 10 건강클리닉(재)
3 20 직언직설		00 KBS 뉴스타임 10 오감만족 세상은 맛있다(재) 35 웃말리는 라와비트 피디(재) 45 아기 증벌레 모포(재)	00 MBC 경제 뉴스 10 헬로 키즈 아하! 지구탐험대	10 금요일엔 수디대(재)
4 30 쾌도난마	00 KBS 오늘의 경제 10 KBS 네트워크 특선 <보물섬>	00 구름방 30 TV 유치원	00 우리 아이 뇌를 깨우는 101가지 비밀(재) 30 또르르 방울이 친구들	00 매일얼마 30 꾸러기 탐구생활
5	00 KBS 뉴스5 20 동물의 세계 40 남도지오그래피	00 코파 반장의 동화 수사대 30 일일 드라마 <무비반지>(재)	00 MBC 뉴스 10 서울드라마 어워즈 2013	00 SBS 뉴스퍼레이드 15 KBC 저녁뉴스 30 날씨와 생활 35 내마음의 크레파스 05 세상발견 유레카
6 00 뉴스현장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뉴스타임 10 생생 정보통 1~2부		
7 20 웰컴 투 월드(재)	00 KBS 뉴스 7 30 한국인의 밥상	50 일일드라마 <무비반지>	15 일일연속극 <오로라 공주> 55 MBC 뉴스데스크 <웃남이 주의보>	10 시사저널 따따따 20 일일드라마 <웃남이 주의보>
8 30 생방송 오픈 스튜디오	25 일일연속극 <지성이면 감천>	30 생생 정보통 플러스 50 엄마가 있는 풍경 마미도	55 MBC 특별기획 <구암 허준> 30 컬투의 베란다쇼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9 4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 9			
10	00 KBS 파노라마 50 콘서트 필드	00 특별 기획 드라마 <칼과 꽃>	00 수목미니시리즈 <투윅스>	00 드라마 스페셜 <주군의 태양>
11 00 웰컴 투 시월드	30 KBS 뉴스라인	10 해피 투게더	20 스토리쇼 <화수분>	20 자기야 <백년손님>
12 10 명랑해결대(재) ①:20 이영등PD <빅거리 X파일(재)>	00 KBS 글로벌24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①:00 KBS 뉴스 10 KBS 걸작디큐멘터리 <집어가는>(재)	30 세상의 모든 디큐 <위대한 알프스 2부-레저의 낙원>	40 MBC 뉴스 24 ①:00 스포츠 다이아리 15 제40회 방송대상 수상작 <공포노 소년 킬러>	40 SBS 토론 공감

EBS

06:10 대한민국 화해 프로젝트 <용사>	10:50 최고의 오리비결 <정미경의 없던 입맛 사라주는 음식-소고기 미역국과 고등어 감자>	15:00 피터팬 <정미경의 없던 입맛 사라주는 음식-소고기 미역국과 고등어 감자>	19:30 TV로 보는 일작 동화
07:00 곤	11:20 세계테마기행 <저장성>	16:00 땀방울 유치원(재)	20:00 EBS 뉴스
07:15 마이의 모델	12:00 EBS 정오 뉴스	16:20 아기 고릴라 동중	20:20 영의의 건강비결 <한국인을 위협하는 5대암-폐암>
07:30 꼬마버스 타요	12:10 연중기획 <폭력없는 학교>	16:30 코코몽2	20:30 세계테마기행 <자연의 섬 룬복과 발리 4부-생명을 살리는 예코 발리>
07:45 로보카 폴리	13:05 지식채널e	16:45 코야모아재	21:30 한국기행 <강릉>
08:00 땀방울 유치원	13:10 출근구 수학 EBSMATH	17:00 방귀대장 뽕뽕이(재)	21:50 대한민국 화해 프로젝트 <용사>
08:20 풍선 꼬끼리 발루보	13:20 레이의 우주 대모험	17:15 꼬마버스 타요	22:45 극한직업 <염전 사람들 2부>
08:35 방귀대장 뽕뽕이	13:30 모피와 친구들	17:30 풍선 꼬끼리 발루보	23:15 EBS 인문학 특강
08:50 모야모야	13:45 꼬마 철학자 후고	17:45 로보카 폴리	24:05 지식채널e(재)
09:05 코코몽2	14:00 짝남 레리우스 박사님	18:00 마이의 모델	24:10 EBS 스페이스 공감
09:20 생활의 비법 <중년 이후, '친구'가 자신이다!>	14:15 장난감 나라의 노디	18:15 곤	
10:00 한국기행 <함양>	14:30 몬스터 수학나라	18:30 생방송 보너하니	
10:20 영의의 건강비결			

EBS플러스1

00:00 기본과 특별한 <한국사>	11:40 <화학II>
00:50 내신 6강 <수학II>	12:30 박복의 이수리 만나는 경제 <생명과과학II>
01:40 포스 <문학I>	13:00 탐스런 <지구과학II>
02:30 <적분과 통계>	14:00 <문학A>
03:20 <기하와 벡터>	15:00 인터넷 수능 <생활과 윤리>
04:10 <수학II>	16:00 EBS N제 <듣기B>
05:00 <수학II>	17:00 인터넷 수능 <수학I A형>
05:50 탐스런 <물리I>	18:00 EBS 수능연성 <수학I B형>
06:40 고교특강 올림 #포스 <영어특혜의 기본I>	20:00 <미적분과 통계기본> <수학II>
07:30 <Basic Grammar>	21:00 <수학II>
08:20 탐스런 <화학I>	21:50 지식채널e
09:10 <생명과과학I>	22:00 <생명과과학I>
10:00 <지구과학I>	23:00 2013 전국정적 대입적성검사 <외국어>
10:50 <물리II>	EBS 모의고사 해설

EBS플러스2

07:00 공인 중개사 시험대비 강좌	16:10 <과학5-2>
07:30 EBS 생생영어	16:40 <과학6-2>
08:00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대비 강좌	17:10 초등 개념 집기 <사회>
08:30 경비지도사 시험 대비 강좌	17:40 사회가 쑥쑥
09:10 중학 1학년 <국어I>	18:00 나의 성공비결 <수학I상>
09:50 <수학I상>	18:30 요리비전 <수학I하>
10:30 <수학I하>	19:00 특목 직업이 보인다 <도덕>
11:10 <도덕>	19:30 극한직업 <수학2-2>
11:50 중학 2학년 <과학>	20:00 왕초보 중학영어 <과학>
12:30 <과학>	20:40 초급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도덕>
13:10 중학 3학년 <세계사>	21:20 등업산공 <과학3-1>
13:50 중학 개념풀장내기 <한문>	22:00 중학 퍼펙트 체크업 <과학3-2>
14:30 <한문>	22:40 중학 3학년 <수학3-2>
15:10 초등내공남 <과학3-2>	23:20 생활의 비법 <과학4-2>
15:40 <과학4-2>	24:00 실험관찰 비보트 6-2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5일 (음 8월 1일 甲戌)

子 36년생 쥐구멍에도 발을 날이 있겠다. 48년생 잘 살펴보아야 대응이 용이하다. 60년생 반비례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72년생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자기 발전에 도움이 된다. 84년생 신바람이 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67, 03	午 42년생 내면의 깊은 부분을 다루게 될 것이다. 54년생 형편대로 처세해야 무리가 따르지 않는 법이다. 66년생 사용하기에 용이할 것이다. 78년생 어떠한 난관과 유혹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겨내야만 한다. 행운의 숫자 : 73, 37
丑 37년생 구조적인 모순에서 벗어나야만 하니라. 49년생 본받을 필요가 있다. 61년생 일정하면서도 지속적으로 행해야 성과가 좋다. 73년생 차분하게 대처하는 것이 낫다. 85년생 근심 없이 편히 지내겠다. 행운의 숫자 : 85, 14	未 43년생 일정한 기준과 거리를 두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55년생 아무런 효과도 없으리라. 67년생 보기와는 달리 상당히 실속이 있을 것이다. 79년생 원거리의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12, 74
寅 38년생 다양한 선택의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50년생 강제하는 것보다는 자율에 맡겨라. 62년생 관점에 따라서 경향이 달라질 것이다. 74년생 너무 엄려한다면 병이 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행운의 숫자 : 92, 95	申 44년생 크게 호기심을 자극하는 바와 접하는 모습이다. 56년생 심리 지변을 일깨우고자하는 내면의 소리가 들릴 것이다. 68년생 미래의 자양분이 될 만한 것이나. 80년생 그런대로 관망은 운세이니라. 행운의 숫자 : 86, 53
卯 39년생 상대를 쉽게 평가하려 들지 말라. 51년생 소모적이거나 무가치하다면 멀리하라. 63년생 크고 넓은 곳에서 함께하는 모습이야. 75년생 전혀 다른 것이니 별개의 개념으로 인식하여야 하는 것이 좋다. 행운의 숫자 : 21, 45	酉 45년생 사정을 헤아려 무리하지 않게 처리 해야겠다. 57년생 그림의 떡이어서 차지할 수가 없을 것이다. 69년생 즉시 실행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해둬야 한다. 81년생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 행운의 숫자 : 54, 78
辰 40년생 양호한 상황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52년생 전체적인 흐름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 용이하다. 64년생 비슷한 상황을 띠게 되리라. 76년생 새롭게 바뀌어 질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라. 행운의 숫자 : 60, 30	戌 46년생 쉽게 장담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58년생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무의미하다. 70년생 보이지 않는 형태로 경명을 발하는 모습이다. 82년생 치밀하게 관리한다면 어떠한 지경에서도 끄떡없겠다. 행운의 숫자 : 93, 09
巳 41년생 여간하여서는 풀기 어려운 문제에 봉착한다. 53년생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구성을 할 필요가 있다. 65년생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겠다. 77년생 지나치면 쉽게 꺾일 수도 있으니라. 행운의 숫자 : 07, 22	亥 47년생 마음만으로는 아니 되니 직접 실행하라. 59년생 형태를 정확히 꿰뚫어 볼 수 있는 혜안이 절실하다. 71년생 이미 정해진 일이라 따를 수밖에 없다. 83년생 새로운 시각으로 재조명하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94, 87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행영” ☎010-9790-8237

조용필 ‘헬로’ 일본 발매

15년 만의 재회 ... '2PM' 옥택연 영어 랩 참여



‘가왕(歌王)’ 조용필(63)이 일본에서 1998년 마지막 공연을 펼친 지 15년 만에 새 앨범을 발표한다. 4일 유니버설뮤직에 따르면 조용필은 올봄 국내에서 선풍적인 성공을 일으킨 19집 ‘헬로(Hello)’의 수록곡을 일본어로 불러 오는 10월16일 일본에서 발매한다. 조용필이 1998년 일본 10개 도시 투어를 끝으로 활동을 중단한지 15년 만이다. 유니버설뮤직의 산하 레이블인 시그마에서 출시되는 이번 앨범에는 19집 전곡과 타이틀곡 ‘헬로’, 수록곡 ‘바운스(Bounce)’와 ‘겉고 싶다’의 일본어 버전 3곡을 추가해 모두 13곡이 수록된다. ‘헬로’의 한국어 버전에는 래퍼 버벌진트와 랩 부분을 맡았지만 일본어 버전에는 그룹 2PM의 옥택연이 영어로 랩을 더했다. 또 앨범의 첫 물량 한정판에는 새롭게 편곡한 ‘헬로’의 뮤직비디오, 배우 조한선이 출연한 ‘겉고 싶다’의 뮤직비디오, 올해 상반기 이뤄진 국내 전국투어의 하이라이트 영상을 수록한다. 조용필은 일찌감치 ‘헬로’를 비롯해 ‘바운스’, ‘겉고 싶다’ 등 수록곡을 일본어 버전으로 부르는 녹음 작업을 마쳤다. 그는 이번 녹음 작업에서 사운드 뿐만 아니라 일본어 발음 등에 신경을 많이 쓴 것으로 알려졌다. 유니버설뮤직 관계자는 “일본어 버전 곡을 녹음할 당시 조용필 씨의 뛰어난 일본어가 가사 표현과 완벽한 일본어 구사 능력을 일본 관계자들이 극찬했다”고 설명했다. ‘헬로’의 랩을 맡은 옥택연은 “전설 같은 선배와 함께하게 돼 영광”이라며 “19집의 ‘헬로’와 ‘바운스’를 좋아했는데 일본 팬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조용필은 이번 앨범을 통해 “15년 만에 재회하는 마음으로” 새 앨범을 발표할 예정이다. 15년 만의 공연인 만큼 현지 공연 관계자들과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이에 앞서 그는 오는 7일부터 ‘2013 조용필&위대한탄생 투어 콘서트-헬로’의 하반기 공연도 재개한다.

버벌진트는 지난 5월 간담회에서 걸그룹 카라가 소속된 일본 레이블 시그마로부터 ‘헬로’의 일본어 버전을 제안받았으며 앨범을 내는 방안을 논의 중인 사실을 밝힌 바 있다. 조용필의 일본 앨범 발매는 국내에서 19집이 판매량 20만장을 돌파하고 LP로도 출시되는 등 젊은층과 중장년층을 아우르며 신드롬을 일으키자 그 여파가 일본까지 퍼져 나간 결과, 그가 1980~90년대 일본에서 큰 사랑을 받은 원조 한류 스타인 만큼 현지 음악 관계자들은 ‘헬로’ 뿐만 아니라 ‘바운스’, ‘겉고 싶다’ 등의 곡이 무척 좋다며 먼저 관심을 보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언론은 한국의 조용필 신드롬에 대해 “1980년대 ‘돌아와요 부산항에’로 일본에서도 크게 히트한 가수 조용필의 신곡이 한국에서 발표되자마자 큰 반응을 일으키며 ‘가왕의 부활’로 화제가 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조용필은 지난 1일 일본 팬페이지를 오픈했으며 앨범을 발표한 후에는 일본 공연도 계획하고 있다. 15년 만의 공연인 만큼 현지 공연 관계자들과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이에 앞서 그는 오는 7일부터 ‘2013 조용필&위대한탄생 투어 콘서트-헬로’의 하반기 공연도 재개한다. 7일 순천 팔마경기장을 시작으로 14일 울산종합운동장, 28일 수원월드컵경기장, 10월5일 고양종합운동장, 12일 광주월드컵경기장, 19일 창원종합운동장 무대에 올라 각각 회당 2만 명의 관객과 만난다. 첫 번째에는 지난 5월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을 시작으로 대전, 의정부, 전주, 대구 등 5개 도시에서 공연을 열어 모두 11만 9000여명의 관객을 모았다. /연합뉴스

다큐 ‘안녕?! 오케스트라’ 영화로 개봉

용재 오닐과 다문화 아이들의 훈훈한 감동 전례

세계적인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과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MBC 다큐멘터리 ‘안녕?! 오케스트라’가 극장판으로 만들어졌다. 영화 배급사 진진은 오는 11월 중순이 영화 개봉한다고 4일 전했다. 이 다큐멘터리는 용재 오닐이 안산 다문화 가정 아이 24명으로 결성한 오케스트라의 이야기를 담았다. 미국에 입양된 한국인 어머니와 아일랜드계 미국인 조부모 밑에서 성장한 용재 오닐은 바쁜 연주 일정 속에서도 틈틈이 아이들과 만나며 끈끈한 관계를

이어왔다. 용재 오닐과 오케스트라 아이들의 가슴 뭉클한 1년의 시간을 담은 이 다큐멘터리는 지난 9월 TV 방영돼 훈훈한 감동을 전했다는 평을 받으며 화제를 모았다. 4부작에 걸친 TV 방영분은 이번 극장판에서 80분 분량으로 다듬어졌다. 이 작품은 오는 10월3일부터 열리는 제18회 부산국제영화제 와일드앵글 다큐멘터리 쇼케이스 부문에도 초청됐다. 용재 오닐과 오케스트라는 부산영화제에서 공연도 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TV 하이라이트

추풍령, 가을 맛은 구수한 밥상



한국인의 밥상(KBS1·오후 7시30분)은 추풍령에 함께 고토리가 터질 때면 추풍령에는 고소한 바람이 분다. 40년 만에 시골로 돌아온 정봉순씨의 눈에는 마을 어귀마다 마주치는 참깨를 맴도는 풍경이 정겹기만 하다. 후드득후드득, 여기저기 깨 터는 소리가 정겹다. 아직은 서늘기만 한 시골 생활이 낯설지 않았던 것은 부부들 가족처럼 받아준 마을 사람들 덕분. 유난히 뜨거웠던 여름을 함께 보내며 지친 마을사람들을 위해 그동안 전하지 못했던 감사의 마음을 담아 고향처럼 구수한 밥상을 준비한다. 가을의 길목, 오순도순 둘러앉은 추풍령의 밥상에는 깨소금 이 쏟아진다. 경상도 음식과 충청도 음식이 만나 추풍령 음식이 되는 이곳에서 진정한 어울림의 의미를 되새겨 보자.

다시 만난 형제의 갈등 극복



대한민국 화해 프로젝트 ‘용사’(EBS·밤 9시50분)는 ‘보도연맹에 가입하면 고무신과 쌀을 드립니다.’ 이 말 한마디에 한국전쟁 당시 25만 명이 가까운 사람들이 보도연맹원이 되었다. 선량한 시민들이 한순간에 공산주의자들에게 협력한 이른바 ‘빨갱이’가 되는 순간이었다. 순박한 시골 이장이었던 아버지와 비단장수 어머니가 보도연맹 사건으로 총살을 당하자 강제 집단 5형제는 전쟁고아가 되고 만다. 살아남기 위해 뿔뿔이 흩어졌던 형제들은 남의집살이를 시작했다. 온갖 구박과 서러움 속에 다른 형제들의 생사도 모른 채 외롭게 성장했다. 성인이 되어 수소문 끝에 형제들을 찾았지만 살아온 환경이 너무도 달랐던 형제들은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갈등한다.

예천 소녀의 남다른 가족사랑



내 마음의 크레파스(SBS·오후 5시35분) = ‘예천 소녀의 특별한 소원 2부’. 엄마의 갑작스런 암투병으로 고3에 생업전선으로 뛰어들어 세화, 그녀는 엄마를 대신해 해장국집을 운영하고 있다. 밑에 네 명의 동생들까지 암처럼 돌보는 세화는 그야말로 무척의 만능소녀다. 이 가족에게 조금 특별한 사연이 있다. 몇 해 전 지금 엄마에게 입양이 된 세화. 가슴으로 맺은 절절한 모녀지간이다. 방학 내내 친구 한 번 못 만나고 해장국집에서 온갖 일을 도맡아 하는 세화. 하지만 개학은 다가오고, 마냥 식당에 있을 수만은 없는 일이다. 가장 중요한 고3시기가 수업에 빠질 수도 없고 현실적인 문제가 부담되고 만다. 피 한 방울 안 쉬인 엄마를 위한 예천 소녀의 절절한 사랑 이야기.